

인터뷰 '개교준비 한창' 송도국제학교 워밍턴 교장

“‘채드워 출신은 다르다’ 칭찬받도록 교육”

인천 송도 국제학교인 '채드워 인터내셔널'이 9월 7일 개교한다. 다음 달 8일까지 유치원생~중학교 1년생 280명(내·외국인)을 모집해 개교한 뒤 2015년까지 고등학생을 포함해 정원 2100명을 채울 계획이다. 개교 준비에 한창인 리처드 워밍턴(Warmington·67) 교장을 만나 학교 운영과 교육 방법 등을 들어보았다.

—학생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.

“우선 첫 학기에 35명의 교사가 280명을 가르친다.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:8로 학생은 과외받는 기분이 들 것이다. 교육은 '경험학습'과 '프로젝트' 중심으로 이루어진다. 예를 들어 연필로 단순히 덧셈이나 곱셈을 시키지 않는다. 대신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주고 송도에 내보내 건물 사진을 찍어오라고 한 뒤 계단이 몇개인 지, 건물 구조는 삼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알아가는 수업을 받게 된다. 채드워는 독일, 인도 등 세계 85개국의 사립학교들이 교육철학을 공유하고, 화상시스템으로 서로의 수업을 보고 듣는 국제 모임의 회원이다. 학생들은 해외 학생들과 수시로 교류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. 고등학생의 경우 46개의 교실에서 공부한다. 각 교실이 투명한 유리창으로 서로 보이고, 교실과 교실 사이에 '프로젝트 방'이 따로 있다. 예를 들어 수학과 과학 수업이 열리면, 수학과 과학이 맞물리는 부분을 공동 프로젝트로 짜 이 방에 수시로 모여 토론할 수 있다. 수업도 영어·수학 등 단편적인 과목 중심이 아닌 다양한 과목을 연계해 진행된다. 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으며 노트북 등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.”

—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정원 2100명 중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을 최소 3대 7로 맞춰야 한다. 가능한가.

“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도전이다. 올해엔 80% 이상이 한국인 입학생일 것이다. 그런데 외국인 비율이 50%가 넘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열



송도국제학교 '채드워 인터내셔널'의 리처드 워밍턴 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해 말하고 있다.

김용국 기자 young@chosun.com

280명 모집해 9월 7일 개교 외국학생과 실시간 화상 교육

외국인 학생 확보가 과제 한국아이 입양 '반쪽 한국인'

린 교육과 다양한 관점을 교환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.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 500명이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 태국이나 중국 등의 외국인 학생을 입주시킬 것이다. 송도에 외국인 기업가나 투자자 가족이 많이 살아야 외국 학생들 유치가 쉬울 것이다. 한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다. 이 문제 때문에 채드워측에 '교장을 2년만 하겠다'고 했는데 4년은 해야 될 것 같다.”

—학비가 1년에 3000만원이 넘어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.

“미국 채드워에선 학교 예산의 15~20%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. 우리도 입

학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다. 또 장학금 재단을 만들어 기업이나 사회 인사들의 기부문화를 조성하겠다.”

—미국 채드워는 어떤 학교인가.

“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1935년 개교했다. 작년 졸업생의 20% 이상이 미국 하버드나 스탠포드 등 상위 11개 대학에 진학했다.”

—송도의 영어학원 여러 곳에서 이 학교 입시 예비반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. 사교육을 이길 수 있나.

“우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따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시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에 갈 이유가 없다. 그러나 대학입시의 경우 기존의 열린 수업과 함께 입시를 준비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조정할 것이다.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80% 이상이 석사 출신인 만큼 학원에 갈 필요가 없도록 가르치겠다. 대입에 대한 한국 학부모들의 열정을 잘 알고 있으니 성과가 안 나면 큰일난다.”

—어떻게 교장을 맡게 됐고 한국과 인연은.

“스탠포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

공부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거쳐 컴퓨터회사인 휴렛패커드(HP)에서 32년간 근무했다. 이 회사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사장을 맡으면서 1988년부터 4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다.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인재들과 같이 일했는데 이들이 기업에서 일할 때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. 당시 '한국 교육이 딱딱하고 창의력이 부족하다'는 느낌이 든 것도 교장을 맡게 된 이유 중 하나다. 2000년에 은퇴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사립학교에서 이사직을 맡으면서 교육경험을 쌓았고, 채드워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망설임없이 수락했다. 나 역시 채드워 출신(1960년 졸업)이라서 학교에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컸다. 한국 아이 2명을 입양해 가족을 이루고 있어, 스스로 '반쪽 한국인'이라고 생각한다.”

—교육자로서의 바람은.

“한국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는 교육을 할 것이다. 정직·열정의 두 화두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세계 어디든 '채드워 출신은 뭔가 다르다'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다.”

이신영 기자 foryou@chosun.com